

지역 소식통

부안군,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주의 당부

부안군이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주의·계도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고품질 무게 기준으로 20%미만으로 배출되도록 인증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하여 판매·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추진... 6일까지

정읍시는 구제역 없는 청정도시 조성을 위해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이번 일제 접종은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약 2주간 소·염소 10만8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500마리 미만)는 시가 수의사와 보정 인력(염소만 해당)등 접종반을 구성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소 사육농장은 반드시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해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는 접종 4주 이후 축산농가의 올바른 백신 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해 항체 양성률 검사를 실시한다.

항체 양성률 기준치에 미달(소 80%, 염소 60%)한 농가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육 가족에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농장 출입 시 차단방역 수칙 준수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국가예산 확보·공모사업 발굴”

## 이학수 정읍시장, “중앙부처·전북도 공모사업 대응 철저히”

이학수 시장은 1일 “현 시점은 국가 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발굴·추진에 중요한 시기”라며 “중앙부처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소통해 공



이학수 정읍시장은 1일 영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학수 시장.

모사업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영상 간담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전북자치도와 협력이 필수”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정읍시 사책 일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사책 일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라”고 강조했다.

시책 일몰제란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나, 이미 목적을 달성해 유지할 필요가 없는 시책을 폐지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이 시장은 “시책 일몰제를 통해 각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각종 사업 추진 시에도 가성비 있는 사업을 발굴해 효율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확대

###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고창군이 4월부터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예비 신혼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생식건강과 관련된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임력 검진비 지원’은 올해 첫 시행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 등(최대 5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검진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검진요

구서를 지참해 검진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후 비용 청구하면 된다.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은 4월1일부터 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이 4월부터 시행한다.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병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부에게 회당 100만원 한도 내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외에도 올해부터 △난임진단검

사비 지원 △예비·신혼부부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소득 무관)으로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군은 11월까지 임신부와 수유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건강교실 △1:1 모유수유 클리닉을 운영하고, 하반기 △숲태교교실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운영하여 난임 진단부터 임신·사건·사후 건강관리까지 임신과 출산 전 주기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보건소 모자보건실(☎560-8762, 8570)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 농어촌공, 국비 7억 투입 사산저수지 준설사업 9월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완중)는 가뭄대비 안정적인 용수공급 수자원 확보를 위해 사산저수지 준설 사업을 국비 7억원을 투입해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산저수지는 1962년 준공된 저수지로 총저수량 183만㎡로 수혜면적 466.0ha를 영농급수를 하는 저수지이다. 이번 준설사업을 통해서 퇴적량 4만톤을 준설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이상기후와 온난화로 물 부족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사산저수지 전경

있는 가운데 농업 생산성과 물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농작물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작황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하며 △홍수 피해를 줄이고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

김완중 지사장은 “사산저수지 준설 사업으로 안정적인 영농급수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며 “가뭄과 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적계획 수립과 점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수지자체 선정

### 정읍시, 다양한 시책 자체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 등

정읍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복지 등기 배상을 통한 위기 가구 생활 실태 점검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 가구 서비스 지원 연계 △참 좋은 푸드마켓 운영을 통한 결식 우려 해소 △취약계층 위생 지원을 위한 이동 세탁차 행복 빨래방 운영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지원 △환경개선 세대 지원 등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자체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민과 밀접한 생활을 하는 수도권점점 등 생활 업종 종사자와 읍면동 이·통장 등 1419명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위기가구 발굴에 앞장서고, 공유냉장고 운영을 통한 결식 우려 해소, 고독사 위험가구 스마트 돌봄플러그 시범 운영 등 민간이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성과는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해소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얻은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인적 안전망 구축으로 모두가 행복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모집

### 오는 15일까지 신청

고창군이 지역 청년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2024 고창군 청년 네트워크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고창군 거주 또는 활동(직장·학교) 중인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5인 이상의 청년 동아리로, 구성원 중 40% 이상은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

작년과 비교하여 고창군 생활 인구 청년의 제약 없는 참여를 위하여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의 비율을 작년 2/3에서 올해 40%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선정된 단체는 청년 교류 활동, 취·창업 준비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등 동아리 운영을 위한 예산 2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신청서와 활동계획서, 예산 집행 계획 등 서류 작성 후 신원력경제정책관 3층 청년창업 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hy605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할 청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청년들의 다채로운 활동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